圖書館人이 본
國會議員과 讀書

鄭 炳 浣
(國會圖書館 司書局)

國會議員과 讀書란 비단 우리들 國會圖書館에 勤務하는 職員들 뿐만아니라 누구나 한번쯤은 고개를 기웃거리는 問題일런지 모르겠다.

日前에 車中에서 偶然히 S大學의 C敎授를 만나 人事를 하고나니 첫말이 「國會議員들이 圖書館을 많이 利用하느냐」고 묻기에 나는 「敎授出身 國會議員들이 이번 國會에는 어느 國會때보다도 많은데 別로 利用하지 않는것이 異常하더라」고 對答하니, C敎授 「하긴 그분들도 이젠 敎授가 아니고 政治家이니까」란 말을 주고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質問은 特히 他圖書館에서 勤務하는 同僚司書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質問이기도 하다. 對答은 大槪 애매한 境遇가 많다. 「글세 많이 利用한다면 하고, 利用 안한다고 하면 안하고…… 많이 利用하고 적게 利用한다는 基準을 어디에 두느냐가 問題지」하곤 對答한다. 이렇게 對答하는 나의 관점은 남과 좀 다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大學圖書館 生活에서 느껴온바 大學敎授들의 學究態度와 圖書館利用을 比較하여 보아 國會議員이란 特殊性 때문에—— 特히 우리 나라 政治人들의 生理로 보아—— 讀書에 對한 期待란 아예 갖지 않는것이 마음 便할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느 圖書館大會에서의 記念講演을 通하여 李孝祥國會議長任은 國會議員들의 圖書館利用에 關하여 論하기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책을 읽어야할 國會議員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機會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바쁜 生活속에서 그날마다를 쪽기다보니 별반 책을 읽을 時間的 精神的인 餘裕를 갖지 못하고 지납니다」고 말씀하신일이 記憶에 남는다.

옛부터 政治하는 사람들은 적 바쁜 生活을 하고 있다. 一般社會人도 學窓生活에서 벗어나면 거이 全的으로 讀書하지 않는데 議員生活이란 複雜한 社會生活속에서 時間을 내어 冊을 읽는다는 것은 여간한 마음 가짐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美國같은 나라의 國會議員은 하루 平均 약 300페지 가량의 讀書量을 갖는다고 하며 議員 個個人當의 閱覽室이 마련되어 그곳에서는 누구의 干涉도 받지 않고 資料를 얻어 硏究와 調査를 할수 있다고 한다. 이에 比하여 우리의 환경은 如何한가?

1963年 11月26日 法律第1454號로 公布된 國會圖書館法 第2條(任務)에 依하면

第2條(任務) 圖書館은 圖書및 其他 圖書館資料를 蒐集하여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함과 同時에 圖書館奉仕를 함을 그 任務로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들 司書의 立場으로서는——消極的인 活動이라 非難 받을지 몰라도——國會議員들이 그들이 맡은바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資料를 얻고자 할때에 充實한 資料를 잘 整理하여 두었다가 손쉽게 提供하면 맡은바 任務는 遂行되는 것이다.

國會圖書館은 맡은바 그 任務를 다하기 위하여 定員 116名의 職員과 藏書 10萬卷, 約1千種의 定刊書, 그리고 議員閱覽室을 갖고 있다. 職員의 構成은 司書局의 司書職과 約 40名의 立法調査官(3級公務員)을 갖는 立法調査局을 그 構成要素로 하고 있다. 刊行物만도 定期刊行物 4種, 不定期刊行物 2種, 都合 6種을 내고 있으며 約 2千卷의 選定된 參考資料와 數多한 定刊書및 인포메이숀·파일資料등을 議員閱覽室에는 常備하여 議員들의 利用을 도움고 있다. 협소한 建物과 不備한 施設이나마 形式上으로 갖추어야할 圖書館으로서의 具備條件은 大略 갖추고 있다고 보겠다.

以上은 大略 國會圖書館職員의 立場에서 본 그 任務에 對하여 論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任務는 누구를 위한것이냐? 그것은 論할것도 없이 前述한바와 같이 國會圖書館法 第2條(任務)에 明示된바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함」에 있다. 그러면 日常 議員들이 얼마나 議員閱覽室에서 資料를 利用하여 그들의 맡은바 職務遂行에 이바지하고 있느냐가 問題될 것이다. 統計上으로 보면 今年들어 約60餘名의 議員들이 議員閱覽室을 利用하고 있다. 어떤 議員들은 工夫하는 學生들이 無

色할 程度로 每日 하루도 빠짐 없이 閱覽室을 利用하고 있다. 大體로 보아서 政治的으로 安定된 議員들이 많이 利用하는것 같다. 그러므로 大槪 巨物級 政治人들이 比較的 많이 利用하는 便이나 어쩌다가 무슨 큼직한 감투나 自·他意로 얻어 놓고 나면 公·私務에 억매여 閱覽室出入이 좀 뜸해진다. 그러다가 그 맡은바 任務가 끝나면 불야 불야 閱覽室을 찾아와서 이제까지 밀린 資料들을 뒤적거리며 한숨돌리는 議員들이 많은것을 보면 讀書의 機會란——特히 이분들에게는——時間的인 餘有가 가장 큰 問題의 하나인것 같기도하다.

그리고 하나 흥미 있는 現狀은 國會議員中에는 辯護士出身과 敎授出身議員들이 가장 많은 比率을 갖고 있으나 이분들의 閱覽室 利用이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國會圖書館이라고 해서 國會議員의 圖書館利用만이 全部일수는 없다.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한다」는 共通된 任務를 갖는 國會議員들에게 資料를 提共함도 또한 重要한 일의 하나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專門委員들, 分科委員會委員들, 秘書들, 그리고 立法調査官들의 資料調査活動이야말로 國會圖書館의 大部分의 機能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그들의 圖書館利用이야 말로 間接的이긴 하지만 議員들의 職務遂行에 크게——實은 大部分이지만——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들 「國會議員들이 얼마나 圖書館을 利用하느냐」고 하는 質問은 우리들 圖書館員의 立場에서 본다면 별로 커다란 問題는 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분들이 날마다 閱覽室을 利用하지 않는다고 失望할 必要는 없고 우리들의 맡은바 任務나 忠實히 履行하여 둥이는 資料나마 어떻게 하면 보다잘 整理, 保存하느냐가 問題될 다름이다. 좀더 積極的인 PR과 奉仕가 보다 많은 利用者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는 問題는 어느 程度의 効果는 認定하나 議員들을 相對로 하는限 別 効力은 없을것 같다. 現在와 같은 社會的인 그리고 政治的인 不安定이 永久히 계속될것도 아니요 國會圖書館이라고하여 國會議員들에게만 奉仕하여야만 된다는 條件 또한 不變한 것 아니니 구태여 많은 關心을 여기에 쓸 必要는 없을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흥미로운 事實은 立法部의 議員으로서 專門的인 資料들은 그다지 利用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그러한 專門的인 資料들은 大略 專門委員들이나 立法調査員들 그리고 秘書들이 議員들의 要請에 依하여 資料調査를 行하여 活動하고 있으며 議員들은 이들 資料를 評價하고 審議할 能力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選定이나 議決에 注力하고 있는것 같은 讀書傾向은 其他의 特殊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現狀이라고 보겠다. 그리하여 圖書館出入을 하는 議員들의 大部分은 主로 國內外의 情勢나 政治思想 그리고 過去의 政治史등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고 資料들을 찾는것 같다. 그러므로 自然히 定刊物의 利用이 많은 量을 찾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議員들에게는 흔히들 있을법한 敎養人으로서의 몸에 갖추어야 할 일들, 例컨데, 餘暇를 즐긴다, 生活에의 設計, 文學과 藝術에의 誘惑이라는등 조용한 讀書環境등은 아쉬운 存在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나 언듯 생각하기에 議員들은 그러한 生活을 營爲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實 없는것 같다. 議員閱覽室에 조용히들 앉아 있을수 있도록 現實은 그들을 外面하는 것이다. 閱覽室밖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그분들을 기다리고 조르고 있으니 웬만한 마음 가짐으로서는 讀書란 갖어 보기 힘드는 일이다. 어쩌다가 議員閱覽室에 10名가량의 議員들이 조용히 앉아 讀書하고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點은 하루속히 政治的 安定이 이룩되고 國會圖書館建物이나마 새로히 新築되어 本格的인 議員閱覽室이나마 마련 되어 이분들에게 奉仕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때가 많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國會圖書館도 비단 이들 國會議員들에게만 利用될것이 아니라 一般人에게도 公開되어 選良과 市民이 같이 利用할수 있는 機能으로 바뀌어져 보다 넓게 그리고 높이 發展되는 날이 있어야 할 것이다.

(4面에서 繼續)

첫째 讀書는 娛樂을 爲해서 있는것도 아니고 社會生活을 하기 爲한 조각知識을 모으는 것은 아니다. 讀書란 原來 生活線 以下의 問題이기 때문에 冊을 많이 읽었다고해서 生活이 나아지는것은 아니다. 절대로 敎養을 爲한 讀書 水準을 꾸준히 지켜가는것이 解決의 方法이다.

다음에 社會의 知性層이 社會가 걸어나갈수있는 理念을 指示할수 있어야 한다. 제일 不幸한 社會는 知性層이 方向感覺을 잃어버린 社會다. 이問題도 올바른 讀書를 通해서만 解決될수 있다.

위에서 말한바 올바른 讀書態度를 維持할때 現代가 「매커니즘」에 빠지는 것을 막을수있고 우리社會가 工業社會로 된後에도 精神的인 王國을 가지고 機械를 이끌며 살수 있을것이다. (이글은 第11回 讀書週間을 맞아 지난 9月 25日 南山市立圖書館에서 開催한 讀書세미나에서 發表한 것을 간추린 것임)